

의료공백에 '응급실 뱅뱅이' 내몰린 시민들

#일주_이슈

전공의 이탈 장기화 초비상체제
긴급환자 받아줄 병원 없어 사망
"왜 환자가 책임져야 하나" 분통
의료계 "필수와 전문의 한계 넘어"

"여러 문제가 있지만 비상 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윤
석열 대통령이 긴급의료와 관련해 이같이
발언하자 비난이 쏟아졌다.

의료계에서는 곧바로 "대통령실과 보건
복지부 관계자들을 일선 의료기관에 가보
라고 하라. 직접 119 구급차를 타보시길
권해드린다"고 반발했다.

의료계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자신의
차레가 돌아오기까지 수시간을 기다리는
환자와 '응급실 뱅뱅이'를 경험했던 환자
가족들은 한결같이 "현장 좀 와봐라. 사람
이 죽어나간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정 갈등 심화와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전국 병원이 초비상체제로 운영 중이다.
광주에서는 조선대학교병원 보건·의료 노
동자들의 총파업까지 벌어지면서 그야말
로 앞전데 뒷전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응급 환자를 치료할 의사와 병상
이 없어 이곳 저곳 병원을 찾아다니는 일
명 '응급실 뱅뱅이'가 전국적으로 발생,
사망하는 환자까지 발생하고 있어 사태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조선대병원 지부가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1일 조선대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환자
옆을 지나가고 있다. 나건호 기자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소방노조에 따르면 지난 7월30일 서울
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남성 A씨가 쓰러
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A
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병상 부
족 등을 이유로 14곳으로부터 모두 거절
당했다가 결국 사망했다. 이튿날인 31일
에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환자가
10여곳의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받아주
는 병원을 찾지 못해 끝내 숨졌다. 실제로
지난해 한 해 응급실 뱅뱅이 횟수는 15건

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7건이 발
생했다.

이런 현상은 지표로도 확인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 3월4일부터
7월3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
역응급의료상황실 접수현황을 보면 전국
적으로 총 5201건의 전원 요청이 있었다.
이중 2799건은 선정됐고 2325건은 이송
결정이었으며 459건은 자체 결정, 15건은
응급실 외방문이다. 이송이 되지 못한 '선
정 불가' 사례는 무려 273건에 달했다.

선정 불가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광주
에서는 7건, 전남에서는 19건이 발생했
다. 응급실로 가지 못하고 계속 거부당한
것이다. 이외 지역은 △서울 59건 △경기
52건 △부산 24건 △경남 18건 △경북
16건 △인천 15건 △강원 14건 △대전
12건 △충남 11건 △전북 9건 △부산 7건
△충북 6건 △제주 2건 순이다.

환자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1일 전남대병원을 찾은 이정숙(81)씨
는 "시골에서 아침부터 올라와 1시간 넘

게 기다리고 있다. 저번에는 검사 하나 받
고 진료 없이 내려갔다가 일주일만에 다
시 올라오기도 했다"면서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으면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하
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가 아파 병원에 온 장혜진(41)씨
는 "요즘은 아프면 안된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하나만큼은 세계에 내세워도 될만
큼 빠르고 좋았는데, 어찌다 이렇게 됐는
지 모르겠다"면서 "제발 병원이 빨리 정상
화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응급의학과 의사 등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가 응급의료 위기라는 현실을 부정하
고 있다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
국의과대학교수협회는 1일 공동 입장
문을 내고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강행이
6개월 넘어가며 전국 응급실들이 공을
내고 무너지고 있다"며 "사력을 다해 버터
오던 응급의학 전문의와 배후에서 수술과
치료를 담당하던 소위 필수과 전문의들이
한계를 넘어가면서 건강에 이상을 보이며
현장에서 쓰러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의 최종치료 능력 저하로 수
용이 불가해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길에서 죽어가고 있고, 3차병
원이 해야 할 일을 떠맡은 2차병원들도 이
제는 한계를 초과하고 있다"면서 "현장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말하고 있지만 대령
은 현장은 아무 문제가 없으며, 위기가 아
니라고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2·3면 노병하기자

여야 대표,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운영' 합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양당의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
야 첫 대표회담을 연 뒤 이같은 내용을 담

은 공동 발표문을 도출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
등 이견이 많은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합
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공동 발표문에 따르면 우선 양당의 민
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 기구

의료사태 국회차원 대책 협의 금투세 주식시장 활성화 검토

를 운영하기로 했다.
내년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
의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
의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산업, AI산업, 국가 기간 전
력망 확충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
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계와 소상공인 부
채 부담 완화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
하기로 했다.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 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
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처벌
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정당 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재도입을 적극 협
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6면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

제5기 전남일보 소울푸드 아카데미 회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000명
- 아카데미 Leadership (포럼 7회)
- 일정 Friendship (체육 행사 2회)
Patronship (전시 관람 1회)
- 교육기간 2024.09-2025.05
- 수강료 330만원(부가세 포함)
- 문의 전남일보 사업본부
(062)519-0730

세부 일정표

일자 및 회차	강사	분야
2024. 09. 26(목) - 포럼 1강	이광재 제35대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	정치
2024. 11. 28(목) - 광주비엔날레 관람 및 만찬		
2024. 12. 12(목) - 포럼 2강	최철 조선대 교수·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예술
2025. 01. 09(목) - 포럼 3강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경제
2025. 02. 06(목) - 포럼 4강	한재권 한양대학교 교수	로봇 공학
2025. 04. 03(목) - 포럼 5강	이경전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교수	정보(AI)
2025. 05. 08(목) - 포럼 6강	한근태 한스컨설팅 대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인문
2025. 05. 29(목) - 포럼 7강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	사회

